



Vietnam

하노이지사

미세먼지 해독전쟁의 무기, 칼라만시

환경문제로 앓는 베트남

이제 아침마다 날씨와 함께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 병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인 미세먼지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그리고 이 수난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베트남의 2대 도시 하노이와 호치민은 세계보건지부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오염된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미세먼지가 연일 '나쁨'을 기록하며 도심지가 뿌옇게 보일 정도로 교민들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특히 높아졌다.

환경이 화두가 된 시대에 발맞춰 한국과 일본은 발암 물질로서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여 대부분의 매장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 노력 중이며, 대체자원으로 유리, 나무, 종이 등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하기 편리하며 가격도 저렴한 플라스틱은 베트남 내에서 여전히 가장 자주 쓰이고 있다.

현지인의 '칼라만시' 디톡스

최근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부를 축적한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 중산층은 의식주 중에서도 '식(食)', 즉 보다 건강한 음식의 섭취 및 이를 통한 건강한 신체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대인들은 인체에 축적된 유해물질, 즉 생활독소를 제거하는 데 디톡스(Detox) 요법을 가장 흔히 사용한다. 서양에서는 레몬 음료를 마시는 레몬 디톡스가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장 청소와 단식이 유명하다. 한편 베트남에서 예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음식이나 음료에 곁들여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인 '칼라만시'는 우연히도 생활독소를 제거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레몬보다 비타민C 함유량이 30배나 많은 칼라만시는 피로

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몸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 준다. 이러한 효과는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탄력을 좋게 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체내 지방 분해도 도와 다이어트에 좋다. 이는 베트남 국민들의 비만율이 적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Key Point

디톡스 효과 있는 현지과일로 한국풍 식품 개발

여러 한국 기업과 한국인들이 서서히 베트남을 주목하기 시작한 지금, 세계 최고수준의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하게 사는 법'은 베트남 교민들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베트남 현지인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민들뿐 아니라 현지인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식품이나 과일은 품질이 좋고 깨끗하다'라는 베트남 현지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칼라만시 등 디톡스 효과가 탁월한 현지 과일을 사용한 한국풍 식품을 개발·판매한다면 교민들과 현지인들 양쪽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